

【 국내금융뉴스 】

무보험 운행 차량 8년 새 2배 증가

□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함.

○ 워크숍 참가자는 16개 시·도의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임.

□ 관련 자료에 따르면,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 16,865천 건 중 94.6%, 덤프트럭 및 레미콘 등 건설기계 116천 건 중 92.0%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, 이륜차는 1,813천 건 중 31.4%만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즉, 일반자동차의 5.4%인 91만 여 대가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되었으며,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10대 중 7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된 것임.

○ 이는 2000년 말 무보험 자가용 43만 여 대에 비해 2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영업용 차량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임.

□ 무보험 차량의 증가 원인으로는 초기 차량 등록 시 등록관청에서 운전자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, 보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누락,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운전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나타남.

○ 의외로 자동차 책임보험이 가입 의무사항임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만큼 등록관청의 홍보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, 매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 자료를 추출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시·군·구청을 통해 제재 조치할 예정임.

□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은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전산망 확인 작업은 물론,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,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및 범칙금 부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처리 요령 등을 습득함.

○ 아울러 업무담당자간 상호 정보교류 기회를 가지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함.

(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강화 워크숍 개최,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, 6/3)